

광주시, 인생2막 설계 동행한다

‘빛고을50+일자리’ 발대식

8개 사업에 8억7700만원 투입

광주시가 장년층 삶에 활력을 더하는 ‘빛고을50+일자리’ 사업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 열정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인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 발대식을 갖고 장년층 생애재설계·장년층 1인가구 지원사업과 장년층 지원방안 정책연구 등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이정선 시교육감, 안도걸 국회의원 당선인, 홍기철·조석호·최지현·박미경·서용규·이명노·강수훈·신수정·안평환 시의회 의원, ‘빛고을50+일자리’ 참여자와 파견기관, 장년세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의 50+정책의 하나로 장년층 중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및 사회봉사 등 노후준비를 위한 생애재설계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자치구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재)광주사회서비스원 빛고을50+센터가 통합·운영하고, 전문적이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고을 50+일자리 사업 발대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3일 열린 ‘빛고을50+일자리 사업’ 발대식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 등이 미니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올해 광주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주요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안전지킴이 ▲50+문화시설 지원단 ▲팔짱도시 광주 온라인 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 ▲무등산재난안전지원단 등 총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 7700만원을 투입한다. 참여자(250명)는 사업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7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강기정 시장은 “사회 변화를 이끌었던 저력으로, 세대 연결자가 돼 도시철도 2호선, 복합쇼핑몰, 인공지능 집적단지, 미래차 국가산단, 달빛철도 등 2030 광주 대전환에 장년층 시민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면서 “성공적인 인생2막 설계를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제8기 예비 명품강소기업 7곳 모집

6월12일까지 접수...자금 우대·기술사업화 지원 등

광주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제8기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고일(5월13일) 현재 광주에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 제조업과 지식서비스기업 가운데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기간연장 기업을 포함해 총 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와 발표·현장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제8기 예비 명품강소기업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자금우대 등 기업 성장목표와 수준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광주시는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명품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접수는 광주테크노파크(062-602-7222,6)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9세 이상 4500명 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

시, 7월까지 1대1 면접

광주시는 “질병관리청, 조선대학교와 협력해 지난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이번 조사는 사전 교육을 완료한 조사원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태블릿컴퓨터(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

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및 체중조절, 식생활, 정신건강,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안전의식 등 총 17개 영역, 204개 문항이다. 조사 결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 자료 및 지역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순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통한 통계자료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민건강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 사업에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풍수해·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 지원

주택·농·임업용 온실·소상공인 상가 등 보상 규정 확정

광주시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진피해 보험료 등을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논

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는 물론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중대재해 예방 ‘앞장’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개최 현장 안전상태 점검 진행도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평동역에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며 현장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입구 안전펜스 설치 현황, 변전소 시설물 관리 상태, 모터카 차고지 관리상태 등 각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직원들의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공사 사장 및 근로자 위원,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사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안전 경영 자문 기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기 대비 재난 취약시설 282곳 안전점검

시, 7월15일까지 교량·지하차도 등

광주시는 “우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5일까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우기 대비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교량, 지하차도, 하천시설 등 취약시설 282 곳이다. 이번 점검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등이 참

여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균열·붕괴 등 결함 여부, 시설물의 배수처리 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펌프 등 각종 설비 작동 여부, 위험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안전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며, 현장 조치가 어렵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시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한 후 신속한 위험정보 전파, 사용금지·제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우기 안전관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집중한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홍보·교육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